

I. 21世紀 敎化戰略에 대한 提言*

박 윤 철(영산대, 수위단회 전문위원)

1. 문제의 제기	5
2.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文化의 시대, 環境의 시대, 住民自治의 시대	6
3. 한국사회의 과제: 통일운동, 교육운동, 종교일치운동	10
4. 문화권: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주목해야 교회가 선다.	14
5. 원불교 교화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전망	16
6. 글을 마치며: 몇 가지 제언	17

1. 문제의 제기

서기 2천년은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다. 또한 서기 2천년은 원불교 圓佛敎가 문을 연 지 85년이 되는 해이자,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少太山 朴重彬 大宗師(1889-1943, 이하 소태산이라 약칭함)의 뒤를 이어 원불교를 이끌었던 정산 종규 종사 鼎山 宋奎 宗師(1900-1962, 이하 정산이라 약칭함)가 탄생한 지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 이 글은 원래 12월 7일에 있을 부산대법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서기 2천년 부산대법회의 주제와 내용”이란 발제 논문으로 구상한 것이다. 발제 논문의 내용이 21세기 미래사회의 교화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내용 수정을 거쳐 “21세기 교화전략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이처럼 서기 2천년은 우리들에게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나간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앞날을 예측할 만한 예지 叡智와 통찰력 洞察力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원불교 교단이 지나온 발자취를 정성스럽게 더듬고, 주위에서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분들의 고언 苦言을 받아 들여, 새로운 출발을 통해 새 아침을 열려는 수위단회 및 교정원당국, 그리고 전 재가·출가 在家·出家 교도님들의 염원 念願에 한 걸음 다가서 보고자 한다.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교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를 해주면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네 가지였다. 하나는 '21세기'요, 둘은 '한국사회'였으며, 셋은 '문화권'이란 단어였으며, 넷은 '원불교 교단'이란 말이었다.

21세기라는 말을 떠올린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둘째로 한국사회라는 단어를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민족의 현재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셋째로 문화권이란 말을 생각한 것은 원불교 교단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충분히 고려할 때 교화 教化가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원불교 교단이란 말을 생각한 것은 우리 교단이 80여년 동안 쌓아온 전통과 현재 간직하고 있는 잠재력 潛在力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필자는 앞에 열거한 '21세기', '한국사회', '문화권', '원불교 교단'이라는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21세기 교화전략에 대해 응답해 보기로 하겠다.

2.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文化의 시대, 環境의 시대, 住民自治의 시대

앞으로 5년뒤인 서기 2천년이 되면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된다. 그래

서 2천년이란 말에는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로 들어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즉 미래로 넘어간다는 뜻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천년으로 상징되는 미래사회, 다시 말하자면 21세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매우 다양하여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교화 활동 敎化活動을 펼쳐 나갈 때 깊게 고려해야 할 측면만을 필자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미래사회는 한 마디로 '문화 文化의 세기'라 정의할 수 있다.

서울대 이면우 교수는 『W이론을 만들자(지식산업사, 1992)』라는 책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고유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우리 고유의 산업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철학이나 우리 고유의 산업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고유의 문화적 토대에서 나올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토대를 가꿀 때, 거기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W이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원리는 국가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철학, 종교, 예술, 문학 따위와 같은 모든 문화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원불교의 경우 교단적 차원이나 각 교구·교당 역시 이 원리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문화의 세기'에는 모든 사회활동이 '문화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사회는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조직·단체를 외면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문화적 대응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향해 몰려갈 것이다. 원불교 교단이 직면하는 현실 역시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 만들기, 고유의 철학 바로 세우기에 눈을 돌려 '문화적 대응력'을 키우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종교에 없는, 다른 교구에 없는, 다른 단체에 없는 우리만의 고유문화, 고유의 철학 만들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고유문화와 고유철학이 있을 때 바로 그것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문화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경쟁력있는 문화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교단의 발전과 교화의 활성화의 관건은 우리들이 '문화적 대응력'을 키우는 데 일

하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지금은 면장 面長님도 문화를 생각하는 시대이다. 문화는 곧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창조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개신교계가 '質' 중심의 선교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화적 대응력을 키우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우리 교단이 다른 종교보다 선구적으로 '문화적 대응력'을 갖추는 교단으로 변신하길 염원해 본다.

둘째 21세기 미래사회는 '환경 環境의 시대'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공통된 문제이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의 환경문제 중심으로 그 대안을 생각하기로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가 개개인의 삶 깊숙히 침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물문제 외에도 대기오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최근 1-2년 사이에 '오존주의보'라는 환경관련용어가 심심치않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오존이란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강렬한 햇빛과 반응하여 2차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다. '오존경보제'란 대기중에 오존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신속히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오존경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중대경보가 있다. 서울의 경우 금년 1년간 6번의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는 사흘 연속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이러한 오존경보제는 경기도, 대전시, 광주시도 199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대기오염이 나날이 심각해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고 있다. 대구·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낙동강의 오염문제는 대구·부산 시민 전체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다. 몇년전 폐놀이라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어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대구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영광의 경우도 현재 4기에 이르는 핵발전소가 있고, 추가로 2기의 핵발전소를 건설중에 있다. 이렇게 밀집된 핵발전소는 주위환경을 황폐화시킬 뿐아니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의 문제, 원전 原電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원전건설을 반대하거나 아예 원전을 추방하자는 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국민들의 무시할 수 없는 욕구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피해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한 지역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환경문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지역의 지역문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린 공동의 문제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우리
세대에만 그 피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또는 수만 년 동안이나 그 피해
가 계속된다. 또한 환경문제는 어느 한 계층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부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환경문제는 똑같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준비
하고 대비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환경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환경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밝은 미래를
전망하려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환경문제를 푸는 데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
다. 원불교의 경우 사은 四恩사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해가
는 길 속에 사회적으로 널리 요청되고 공감 共感을 받는 환경운동의 실천. 환경운
동의 사회화 방향이 들어 있음을 널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는 주민이 직접 나서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살 만한 고장으로 만들
고자 노력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가 널리 확산되는 주민자치 住民自治, 지방자치
地方自治 시대가 될 것이다.

20세기가 17-8세기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소위 국민국가 또는 민
족국가(National State) 단위로 중앙집권적 통치를 행해 왔다면, 21세기는 주민들
의 직접 참여에 의한 삶의 시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던 민족국가라는 국가형태는 불과 2세기(19-20세기)
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용옥 金容沃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대는 이제 “ 국가라는 王政의 기나긴 축이 민주 民主의 축으
로 문명사의 대전환(The Greatest Epochal Shift of Civilization)을 이룩하는 과정
에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국가의 모습은 노자 老子가 말한 ‘소국과민 小國寡民’
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국과민’ 형태의 국가란 결국 주민
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주민자치, 지
방자치의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주민자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져 갈 것이다.

원불교 교단이 21세기를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 교화를 펼쳐가려면 이같은 주민자치운동,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변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부산직할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부산직할시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는 약 4백만으로, 강서구·금정구·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하구·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등 12개의 구, 188개동(1988년기준)으로 이루어진 한국 제 2의 대도시이자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이다. 동남해안의 공업중심지이면서 연근해 어업활동의 중심항구이다. 또한 자연환경, 역사, 유물·유적, 교육문화, 민속, 산업·교통, 관광, 행정구역 등에 있어서 다른 대도시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란 이같은 특수성을 살리면서 자기가 사는 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운동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자치란 '고향만들기운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부산교구의 교화활성화는 이러한 주민자치운동, 즉 주민 자신들에 의한 '고향만들기운동'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기여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성공적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금정구 금샘마을의 금샘사랑방 문화클럽이다. 이 금샘사랑방 문화클럽은 부산대 황한식 교수가 중심이 되어 4년전에 시작된 모범적인 주민자치운동의 성공사례이다.

3. 한국사회의 과제: 통일운동, 교육운동, 종교일치운동

통일 統一을 생각한다. 지난 여름 한총련 사태를 생각하면 공연히 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화가 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통일을 생각하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의 수준이 고작 저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가슴이 답답한 까닭은 정부의 대처방안이 구시대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통일을 희망하는 사람이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통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바람직한 통일운동의 모습은 쉽게 눈에 들어 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종교들도 저마다 통일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나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운동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통일의 철학이 결여된 채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의 철학이 없는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통일은 단순한 국토통일이 아니며, 단순한 정치형태의 통합이 아니다. 일찌기 신라 新羅가 통일전쟁을 통해 백제 百濟와 고구려 高句麗를 묶어 정치적 통일을 달성했을 때도 진정한 통일국가는 아니었다. 원효 元曉스님이 나와 ‘十門和諍論’을 통한 통일의 철학을 제공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일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통일 못지 않게 사상적 통일, 문화적 통일이 달성되어야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첫째 21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큰 역사적 과제는 바로 통일이다.

남북한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주적·평화적 통일, 반세기에 걸친 사상적·문화적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는 사상적·문화적 통일, 구체적으로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화해시키는 위대한 통일의 철학에 의한 철학적 통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때 원불교 사상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우선 원불교는 한국에서 일어난 새 종교로서 그 사상적 기저에 민족자주적 입장을 견지한다. 원불교는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서구 제국주의 열강 帝國主義 列強이 비서구 문명권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일삼던 시기에 침략과 전쟁의 종식을 염원하는 평화와 상생의 가르침을 펼쳐 왔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이루낼 수 있는 자격과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 사상은 모든 종교와의 공존을 실현하고, 모든 사상과의 만남(이것을 학술적 용어로는 會通이라 부른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 사상과의 화해에 적합한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 사상을 구체적인 한국이라는 사회·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차원의 통일운동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역자만이 전개하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재가·출가 전교도가 참여하는 통일운동, 젊은 이들만이 앞장서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통일운동,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잠시 잠깐 벌이는 통일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생활화된 통

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지리적·정치적 통일운동만이 아니라 사상적·문화적 통일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둘째 통일외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것일까? 필자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교육문제 教育問題라고 단언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한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인 가정은 자녀들에게 공부외의 다른 문화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이제 가정은 편안하게 쉴 곳도 아니고 즐겁고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도 아니다. 단지 공부라는 것에만 정신을 팔도록 강제하는 싫증나는 학교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중략) 학교는 집보다 더 싫은 곳이다. 학교는 가정의 창조한 공부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공장에 다름아니다”

가정은 공부라는 것에만 정신을 팔도록 강제하는 싫증나는 학교, 학교는 가정이 창조한 공부문화를 확대재생산하는 공장! 현단계 우리 교육 현실을 이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만을 강요하는 사회, 공부만을 강요하는 가정, 공부만을 강요하는 학교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사회를 책임져야 할 세대인 청소년들을 비인간화 非人間化로 몰아 간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끝내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 道 단위로 설치된 청소년상담실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상담신청사례와 청소년 자신들의 상담신청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성적문제라고 한다. 이 땅의 비뚤어진 교육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는 이같은 사회풍토를 거대한 ‘사회적 드라마’라고 표현한다. 조교수는 “교실의 문화를 제대로 읽고 만들어 갈 거대한 문화혁명으로서 교육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21세기 한국사회는 교육문제를 푸는 데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청

소년들이 공부에서 해방되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갈 때 우리 모두의 희망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현재의 교육현실, 현재의 교실문화를 바꿔갈 교육문화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현재 뜻있는 이들이 전개하는 '대안학교운동'도 바로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에 다름 아니다. '대안학교운동'을 이끄는 이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학교 중의 하나가 영산성지에 자리하고 있는 '영산성지학교'이다. '영산성지학교'는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학교이다. '대안학교운동'은 이러한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기존의 제도권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도 함께 필요하다. 즉, 공부도 잘하면서 인간성도 괜찮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거창고등학교가 바로 그런 예이다. 아 물론 '대안학교운동'에 대해 교단 차원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대전·충남, 충북, 강원, 대구·경북, 경남, 부산교구의 경우, 원불교 교단이 사회 일반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시설이 열악한 점에 착안한다면 '대안학교운동'을 교구단위의 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해 봄직하다. 특히 영산 원불교대학교에 새로 개설되는 청소년학전공 및 사회복지학 전공분야를 '대안학교운동'의 실천과 연계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래 한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종교간의 갈등을 꼽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광신적 狂信的인 신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타종교에 대한 공격 및 비방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넘어 위태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종교적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 多元化되는 데 유독 종교 분야만 배타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다원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한 가치가 상대화되어 다른 수많은 가치와 만난다는 점이다. 21세기 한국사회는 다원사회다. 수많은 가치가 만나고 교류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원사회에 처한 종교의 역할도 다원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상대종교가 가진 교리체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만나 교류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대 종교학과 김종서 교수는 앞으로는 '카페테리아식 종교'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종서교수는 계속하여 말한다. " 카페테리아 식당에서는 양식

이든 한식이든 구태여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때에 따라 입맛에 따라 골라서 섞어 먹으면 되는 것이다. 종교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종교상황을 이끌어 나갈 성직자에게 타종교에 관한 지식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이다” 라고. 21세기 미래사회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타종교와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런 세상에 타종교에 대한 배척이나 비방, 공격행위나 일삼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한 겨울 언 땅 위에 씨앗을 뿌리는 시대착오적 인물이 틀림없다. 또 김종서 교수에 의하면, 앞으로는 “ 무슨 종교이냐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어느 종교로부터 나온 것이냐도 무의미하다. 점점 더 다양한 먹거리가 뒤죽박죽되어 자기혼자식의 개인종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한다. 그렇다면 21세기 다원종교시대를 맞는 원불교는 타종교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원종교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기 위해서라도 타종교와의 만남의 문제를 깊게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다원종교시대에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될 ‘카페테리아식 종교현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도 궁합을 보고 결혼해 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보살’을 신앙할 미래 한국사회의 종교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문화권: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주목해야 교화가 산다.

대종사 재세시 초기 교화상황 敎化狀況의 특징은 호남, 영남, 서울 세 지역을 거점 據點삼아 교화를 펼쳐 나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대종사 재세시 교화활동의 3대 거점 가운데 하나였던 부산·경남교구의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 및 역사와 원불교 교화활동의 관계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부산·경남교구가 초기 교화의 3대 교화거점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1996학년도 원불교대학원에서 나

온 논문 「圓佛教 初期教團 有功人들의 社會人口學的 特性(黃孝峻)」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위 논문에 의하면, 원기 36년까지 유공인 1,756명 가운데 부산은 164명(9.3%), 경남은 163명(9.3%)으로 함께 327명(18.6%)에 이르러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서울 52명(3.1%), 경기 97명(5.5%)에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이다. 또 교당분포에 있어서도 원기 36년까지 설립된 50개 교당 가운데 부산 3개소(6.0%), 경남 4개소(8.0%) 함께 7개소(14%)로 역시 전남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사 재세시 부산·경남지역이 교화활동의 3대 거점의 하나가 되어 교화를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는 구체적 증거라 말할 수 있다.

부산·경남지역이 원불교 교화활동의 3대 거점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원기 36년 이후의 교단사에서도 확인된다. 원기 30(1945)년부터 31년 두 해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전재동포구호사업’ 역시 서울과 전주·익산, 부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교단의 문화활동 역시 부산지역이 그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24일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공연된 성극 “이차돈의 죽음”은 두고두고 부산 교도들 사이에 회자 膾炙되어 오던 명연극이었으며, 원기 41(1956)년 경남교당(현 부산교당) 김백련 金白蓮 교도의 회사금으로 원광사 圓光社에 새로 들여온 활판인쇄시설은 오늘날의 원광사를 대전이남 호남권 굴지의 인쇄·출판사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처럼 부산·경남지역이 초기 교단시절부터 원불교 교화의 3대 거점의 하나로 꼽힌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지역 최초의 교당이었던 하단 下湍지부(원기 16년) 설립, 두 번째 교당인 남부민 南富民지부(원기 19년)의 설립, 세 번째 교당인 초량 草梁지부(원기 21년)의 설립·창설 때마다 직적 행가 行駕하여 부산지역의 교화를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대중사님의 행적 行蹟은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일까?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그 깊은 뜻을 모두 헤아려볼 수는 없어도 한 두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부산·경남지역이 초기 교단 시절부터 교화활동의 중요 거점이 된 이유는 부산·경남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오랜 불교 문화의 전통과 그에 따른 불심 佛心이 깊은 고장이라는 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대중사께서는 1916년 4월 28일 ‘大覺(큰 깨달음)’을 이룬 후, 깨달은 경

로와 그 내용이 부처님의 행적과 일치하는 바가 많다고 하여 부처님에 연원 淵源을 정하였으며, 원기 4년 ‘불법 佛法에 대한 선언’을 통해 불법을 주체로 교화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대종사가 부처님에게 연원을 두며, 불법에 주체한 교화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 것은 과거 불교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새 사상, 어떤 새 종교도 과거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채 성립할 수 없다. 문화적 전통이란 한편으로는 단절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승된다. 대종사가 홀로 의문을 내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스승의 지도없이 홀로 구도하다가, 홀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바로 과거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깨달음을 이룬 뒤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고, 금강경 金剛經을 구해 읽고 부처님에게 연원을 대며, 불법에 주체를 삼아 교화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과거의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대종사가 불교 문화의 전통이 찬란하고 불심이 장한 불교 신자들이 많은 부산·경남지역을 교화의 중요 거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대종사님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대한 안목이 남달랐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내다 보는 원불교 교단은 초기 교단시절 대종사께서 보여준 과거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대한 ‘창조적 단절’과 ‘창조적 계승’ 계승작업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 구체화하는 작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화 중에서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되 그 가운데 원불교 교단의 ‘창조성’이 널리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이 과연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 각 교구와 교당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지 궁금해진다.

5. 원불교 교화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전망

80년간의 교화의 역사를 분석하여 그 성과를 집약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

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다른 기회를 통해 정리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 글을 마치며: 몇 가지 제언

21세기 교화전략에 대한 提言을 위하여 “21세기, 한국사회, 문화권, 원불교 교단”이란 네 단어를 중심으로 필자의 짧은 소견을 적어 보았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셈이라는 생각이 들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꼴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부끄럽기 그지 없지만 21세기 원불교 교화의 활성화를 위한 총정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교단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대응력’을 기르는 방향에서 교화전략을 검토하길 바란다. 문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교무 개인이나 교당·교구 모두 ‘문화적 대응력’을 갖추어야만 교화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

둘째 교단은 21세기 교화전략을 수립할 때 ‘환경’ ‘교육’ ‘주민자치(고향만들기)’ ‘통일’ ‘종교일치운동’ 등의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교단의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 중심으로 교화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원불교 교단이 부단히 변화해가는 사회변화와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종교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과거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정확한 인식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교 사상이나 불교문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인식 없이는 현재 불교 교단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개혁불교와 원불교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교단에서는 불교와의 관계를 교리적으로나 교단정책상으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철학이 없는 불교와의 관계 강조는 자칫 대중사님의 본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교와의 관계

를 강조하되 원불교의 '창조성'이 드러나 개혁불교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참신성이 원불교에서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 즉, 불교 문화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창조적 단절과 창조적 계승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80년 교화사를 통해 원불교 교단이 이룩한 훌륭한 전통을 적절하게 드러냄으로써 재가·출가 교도들의 자긍심과 참여의식,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층, 청소년층, 노인층이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